

李白 <古風>五十九首 譯解(7)*

- 45수에서 51수까지

李基勉** · 崔宇錫***

<목 차>

1. 서론
2. 본론
제45수 八荒馳驚綱
제46수 一百四十年
제47수 桃花開東園
제48수 秦皇按寶劍
제49수 美人出南國
제50수 宋國梧臺東
제51수 殷后亂天紀
3. 결론

1. 서론

이백(701~762)의 <古風>59首 가운데 제45수부터 51수까지의 7편에 대해 주석과 함께 번역을 하고, 校記, 詳釋, 解說을 덧붙인 것이다. 原文은 宋蜀本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校勘은 詹鐸 主編의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을 참고하여 가장 합당한 것으로 取捨하였다. 번역은 직역을 기본으로 하되, 직역 후

* 이 논문은 '韓國李白講讀會'의 발표와 토론을 거친 후,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최종 책임 교열한 것이다.

** 배재대학교 교수

*** 우송대 교수(교신저자 taida@hanmail.net)

의미가 생경할 경우에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의역하였다. 詳釋에서는 시구의 의미를 전후 맥락 및 창작 배경과 더불어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解說에서는 시의 主旨, 시의 창작 시기, 시에 대한 역대 평가 등을 기존의 성과를 망라하며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古風> 59수는 그 제재 상으로 '詠懷', '諷諭', '詠史', '遊仙'의 네 부류로 분류된다.¹⁾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제45수 <八荒馳驚颯>와 제49수 <美人出南國>는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읊어낸 '詠懷詩'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46수 <一百四十年>, 제47수 <桃花開東園> 그리고 제50수 <宋國梧臺東>는 모두 사물과 사건을 빗대어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諷諭詩'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으며, 제48수 <秦皇按寶劍>와 제51수 <殷后亂天紀>는 모두 역사적 제재를 원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詠史詩'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2. 본론

제45수 八荒馳驚颯

八荒馳驚颯,²⁾ 온 세상에 거센 회오리바람 휘몰아치네,
萬物盡凋落. 만물이 모두 시들어 떨어지네.
浮雲蔽頽陽,³⁾ 뜬 구름은 지는 해 가리고,
洪波振大壑.⁴⁾ 거센 파도는 깊은 바다 뒤흔드네.

1) 張明非, <試論李白'古風'>(《廣西師範大學學報》, 1985年 4期, 1-8쪽) 참조.

2) 八荒: 팔방의 멀고 너른 범위. 온 세상. ○ 馳: 전파되다. 널리 퍼지다. ○ 驚颯(경표): 朱諫은 "난세"를 비유한다고 했고, 王琦는 "폭풍"이라 했다. ○ 이 구절은 사방에서 위급상황 전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3) 浮雲: 주간은 "간신을 비유한다"고 했다. ○ 頽陽(퇴양): 지는 해. 《文選》 권20 謝瞻의 <王撫君庚書陽集別作>에 "頽陽照通津, 夕陰暖平陸"이라 했고 呂延濟는 '퇴양'을 "落日"이라고 주를 달았다. 楊注에서는 "어리석은 임금"이라 했다. 주간은 "늘그막의 군주를 비유한다"라고 했다.

- 龍鳳脫罔罟,⁵⁾ 용과 봉황은 그물을 벗어나,
 飄搖將安託.⁶⁾ 정처 없이 떠돌다 장차 어디에 의탁하겠는가!
 去去乘白駒, 흰 망아지 타고 길 떠나,
 空山詠場藿.⁷⁾ 인적 없는 산에서 <흰 망아지>시나 읊조리려네.

<校記>

제1구의 “馳”는 “駐”로, 말구의 “場”은 “長”이라고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析>

안록산이 변방에서 난을 일으켰다는 위급한 상황보고가 사방팔방에서 날아드니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다. 게다가 때는 음력 11월이라 세상 만물들이 모두 다 조락하였다.

양귀비와 양국충 같은 간신배들이 현종의 판단력을 흐리자, 안록산의 반란과 같은 거대한 파도가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용과 봉황으로 비유되는 군자가 재난을 당했다가 다행히도 그 재난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건만 이제는 어디서 누구에게 의탁해야할까?

옛날 노래에 나오듯이 하얀 망아지 타고 길을 떠나 인적 없는 산속에서 “하

4) 大壑(대학): 《莊子·天地》편에 “대저 ‘대학’이라는 것은 물을 대어도 넘치지 않고 물을 퍼내도 마르지 않는다(夫大壑之爲物也, 注焉而不滿, 酌焉而不竭)”고 했다. 陸德明은 《釋文》에서 “대학은 東海”라고 했다. 《山海經·大荒東經》에서는 “동해 밖의 대학(東海之外大壑)”이라 했다. 《列子·湯問》에서는 “발해 동쪽으로 엄청나게 떨어진 곳에 대학이 있는데 밑바닥이 없는 골짜기(渤海之東, 不知幾億萬里, 有大壑焉, 實惟無底之谷)”이라 했다. 殷仲文은 《解尚書表》에서 “(거센 물결이 골짜기를 뒤흔들면 개천에는 마음편한 물고기 없다(洪波振壑, 川無恬鱗))”라고 했다. 沈德潛은 이 두 구에 대해서 “어지러운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리킨다(隱指亂時景象)”이라 했다.

5) 龍鳳: 용과 봉황으로, 여기서는 ‘군자’를 가리킴. ○ 罔罟(망고): 그물. 재앙이나 재난을 비유한다.

6) 飄搖: 바람에 나부끼다. 흔들거리다.

7) 《詩經·小雅·白駒》 편에 “하얀 망아지 우리 마당에 난 짝을 먹으니(皎皎白駒, 食我場苗)”라 하였고, 《毛傳》에서는 “선왕 말년에 현인을 등용할 수 없게 되자 현인이 하얀 망아지를 타고 떠나갔다(宣王之末, 不能用賢, 賢者有乘白駒而去者)”라 하였다. 또 “皎皎白駒, 食我場藿(곽, 콩잎)”이라는 구에 대해서 《毛傳》에서는 “藿은 苗과 같다”라 했고, 朱諫은 “이 두 구절에 대해 ‘현인이 나를 위해 머물러 주지 않고 하얀 망아지를 타고 떠나간 것을 말한다(言賢者不爲我留, 乘白駒而去也)’고 주석을 달았다.”

안 망아지 내 마당의 새싹과 콩잎을 뜯어먹네”라는 노래나 읊조리려네.

<解說>

天寶 14년(755) 11월에 安祿山이 楊國忠 등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난을 일으켰다. 같은 해 12월 東都인 洛陽을 점령하였고, 이듬해 6월에는 潼關을 점령하고 哥舒翰을 생포한 후 수도 장안을 정복하는 등 華北지역을 거의 다 점령하였다.

朱諫은 이 시는 이백이 안록산의 난을 피해서 廬山에 머물던 시기에 지은 것으로 이백 자신을 이야기한 것이라 하였다. 이렇듯 이백은 주인이 자신을 머무르게 하려고 자신이 타고 온 하얀 망아지에게 어린 싹(콩잎)을 먹인다 하더라도 그는 산림에 은거하며 避世하려는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蕭士贊은 “이 시의 앞의 4구는 안록산의 난 때 현종이 파천하고 천하가 어지러웠던 일을 가리키고, 제5구에서 끝까지는 태백 자신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구름에서 벗어났지만 의탁할 데가 없음을 가리킨다(此詩前四句是指遭祿山之亂, 乘輿播遷, 天下驚擾. 五句至末句是太白罹難, 脫身羈囚, 無所依託也)”라고 했다. 詹鐸은 《李白詩文繫年》에서 뒤의 4구는 “대저 출옥한 뒤에 의탁할 데가 없어서 出世를 생각했을 뿐 세상이 어지러워 은둔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蓋以出獄之後無所依託, 乃思出世耳, 非以世亂而隱也)”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제46수 一百四十年

一百四十年, 나라가 세워진지 백 사십년,
國容何赫然,⁸⁾ 나라의 모습은 얼마나 빛나는가!
隱隱五鳳樓,⁹⁾ 우뚝 솟은 오봉루,

8) 國容: 나라의 상황. 궁실, 복식 등과 같은 나라의 의용. ○ 赫然(혁연): 성대한 모양.

9) 五鳳樓: 外廷의 문이다. 당나라 동도인 洛陽에 있었다. 《自治通鑑》 卷214 玄宗開元23年

峨峨橫三川,¹⁰⁾ 드높이 세 줄기 강 위에 걸쳐 있네.
 王侯象星月,¹¹⁾ 왕후는 별처럼 많고,
 賓客如雲煙. 빈객은 구름처럼 몰려드네.
 鬪鷄金宮裏, 황금 궁궐 안에서 투계를 하고,
 蹴鞠瑤臺邊.¹²⁾ 백옥 누대 가에서 축국을 하네.
 舉動搖白日, 한번 흔들어 밝은 해를 흔들고,
 指揮回青天.¹³⁾ 손을 휘저어 하늘을 돌게 하네.
 當塗何翕忽, 권력을 잡는 것은 그리도 빠른데,
 失路長棄捐.¹⁴⁾ 권력을 잃으면 영원히 내쳐지는구나.
 獨有揚執戟,¹⁵⁾ 오직 양웅만이,
 閉關草太玄.¹⁶⁾ 빗장을 걸고 <태현경>을 지었네.

<校記>

제1구부터 제6구까지 6구는 “帝京信佳麗，國容何赫然。劍戟擁九關，歌鐘沸三川。蓬萊象天構，珠翠誇雲仙”로 쓰여 있는 판본도 있다.

에 “황제는 오봉루에서 연회를 베풀고, ... 당시 삼백리 이내의 자사와 현령에게 명하여 소속된 악공을 거느리고 누각 아래로 모여 각기 비교하여 승부를 가리도록 했다(上御五鳳樓醜宴, ... 時命三百里內刺史、縣令各帥所部音樂集于樓下各較勝負)”라는 전고가 보임. ○ 隱隱: 성대한 모양, 궁전이 높은 것을 형용함.

- 10) 三川: 선진시기 중국 고대 지명. 황하 중하류 유역의 중원지역을 가리킴. 河南省 황하 이남의 洛水, 伊水 유역을 포함한다. 《戰國策》: “삼천과 주 왕실은 천하의 조정과 시장이다(三川、周室, 天下之朝市)”에 대해 韋昭는 “黃河·洛水·伊水を 삼천이라고 한다(河·洛·伊故曰三川)”라고 했다.
- 11) 星月과 雲煙은 王侯와 賓客이 많은 것을 형용한 것임.
- 12) 鬪鷄: 투계. 원종이 투계를 좋아하여 귀족 대신들이 모두 익혀 당시 풍속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古風> 제24수 <大車揚飛塵>의 주석 참조.
- 13) 蹴鞠(축국): 蹴鞠(축국)으로도 씀. 발로 차는 공이나 발로 공을 차는 놀이를 가리킴. ○ 瑤臺: 건축이 아름다운 누대를 가리킨다. 唐나라 宮城과 御苑 안에는 모두 축국장이 있었다.
- 14) 當塗何翕忽. 失路長棄捐: 揚雄의 <解嘲>에 “길에 올라 때를 만난 자는 고위 관직에 오르고, 길을 잃어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도랑에 버려진다(當塗者昇靑雲 失路者委溝渠>”라는 전고가 보임.
- 15) 揚執戟(양집궐): 西漢시기 문장가 揚雄(B.C.53- B.C.18)을 가리킴. 양웅은 辭賦에 뛰어나서 한 왕실의 태평성대와 궁터를 노래한 <甘泉賦>, <羽獵賦> 등을 지었다. 사부를 좋아한 成帝에게 부름을 받고 궁중에 들어갔으나, 관직은 給事黃門郎의 말직에 불과했다. 王莽이 세운 新 조정에서는 校書郎과 大夫를 지냈다. 《文選》권42曹植<與楊德祖書>에 “옛날에 양웅은 전 왕조의 집궐 신하였다(昔揚子雲, 先朝執戟之臣也)”라는 전고가 보임.
- 16) 太玄: 揚雄의 저서 《太玄經》을 가리킴.

제7구 “金宮”은 다른 판본에 “金城”이라 되어 있다.

제8구 “蹴鞠瑤臺邊”은 다른 판본에 “走馬蘭臺邊”으로 되어 있다.

<詳釋>

당나라가 세워진지 어느새 140년. 나라의 기세는 점점 융성해져 그 모습은 얼마나 빛나는가.

장안 도성의 외정에 우뚝 솟은 오봉루와 수많은 전각들은 드높이 치솟아 세 줄기 강위에 걸쳐 있구나.

왕후 대신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고, 그 집에는 손님들이 하늘의 구름처럼 물려드는구나.

황금 궁궐 안에선 투계를 하고 백옥 누대 가에서 축국을 하니, 한번 움직이면 밝은 해를 흔들고 손을 휘지어 푸른 하늘도 돌게 하니 총애를 얻은 자의 기세가 이와 같구나.

때를 만나 총애를 얻은 자는 권력을 잡아 빠르게 고위 관직에 오르고, 권력을 잃으면 영원히 버림받아 내쳐지는구나.

옛날 집극의 미천한 관직을 지낸 양웅이 빗장을 걸고 《太玄經》을 지었듯이, 나도 것처럼 속세를 떠나 영달을 구하지 않고 고요하게 스스로를 지키리라.

<解說>

이 시는 임금과 신하들을 교대로 풍자한 것에 주지를 두고 있다. 朱諫은 “이 시는 이백이 나라가 융성해져서 총애를 얻고 부귀해진 자가 많으나 자신은 때를 만나지 못하고 있음을 탄식한 것이다(此白敘國歌之盛, 亦幸富貴者多. 因歎在己之不遇也)”고 했다. 이어서 그는 “당 현종 당시 나라가 융성한 때에 현인을 등용하지 않고 소인들이 추천을 받아 벼슬에 나가자, 군자들이 물러나 몸을 숨기고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재앙과 변란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明皇當國家全盛之日, 不能養賢用人, 以致小人進而君

子退, 禍亂之幾, 或萌於此, 此意在於言表)”고 했다.

이 시의 작시 연대와 장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명대 胡震亨은 “武德으로부터 천보14년 까지가 대략 140년 이므로 이 시는 천보 14년에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自武德迄天寶十四在恰百四十年, 豈此詩作於此年歟)”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청대 王琦는 “당은 武德 원년(618)으로부터 천보14년(755)까지는 138년이므로 이 시는 천보 원년(742) 이백이 한림학사로 있을 때에 지은 것으로 보이며, ‘四’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唐自武德元年至天寶十四載, 得一百三十八年, 此詩約是天寶初年太白在翰林時所作. ‘四’字疑誤)”고 했다. 그리고 安旗는 이 시를 천보12년(753), 세 번째 장안에 들어와서 지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시 가운데 ‘五鳳樓’와 ‘三川’은 모두 洛陽에 있었는데, 詹鍇은 《李白詩文繫年》에서 이 시는 천보4년(745) 이백이 조정을 떠나 동도 낙양에서 머물 때 지은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더욱이 당나라 개국 140년이 되는 해는 肅宗의 建元 元年(758)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 내용으로 볼 때, 이 시는 이백이 천보 초기에 장안에서 지은 것으로 보이나, 그 때는 개국 120년이므로 시 가운데 ‘四十’은 ‘二十’이나 ‘三十’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 천보14년 11월, 안사의 난(755-763)이 일어났으므로 이 시를 천보 초기에 지은 것으로 볼 때, 이백이 지난 날 나라의 기세가 융성하던 때를 생각하며, 군신이 우매하고 부패한 것을 질책하며 자신은 조정을 떠나 고요하게 지내고자 한 뜻을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점이 있는 것이다.

蕭士贊은 이르길, “이 시의 전6구는 梁鴻 의 <五噫歌>에서 나온 것이다. 그 대의는 당나라가 나라를 세운지 이와 같이 이미 오래되어 나라의 위세가 융성해짐이 이와 같고, 왕후빈객 또한 이와 같다. 이른바 金宮과 瑤臺는 마땅히 현인들을 불러들여야 하는 곳이거늘, 지금은 투계와 축국의 장이 되고 말았다. ‘白日’과 ‘青天’은 하늘의 태양으로 임금을 비유한 것이다. 투계와 축국은 현종이 좋아한 것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뜻을 이루고 권력을 장악하여 그 거동과 지휘는 황제가 보고 듣는 것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했다. ‘當塗何翁忽’ 구절은 때를 만나서 출세하여 그에 의존한 자는 벼락출세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을

비유한 것이고, ‘失路長棄捐’ 구절은 때를 만나지 못해 의존할 곳이 없는 자는 끝내 버림받고 쓰이지 못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오로지 선비만이 홀로 분수를 지키며 문을 닫고 글을 지을 뿐이다(此篇前六句, 意出自梁鴻<五噫歌>。大意謂, 有唐得國之久如此, 國容之盛如此, 王侯賓客又如此。所謂金宮, 瑤臺, 正當爲延賢之地, 今乃爲鬪鷄, 蹴鞠之場。‘白日’, ‘青天’者, 天日以比其君。鬪鷄, 蹴鞠, 明皇所好。此等之人, 得志用事, 舉動指揮, 足以動搖主聽也。‘當塗何翁忽’者, 以喻得其蹊徑而依附之者, 可以翁忽而暴貴也。‘失路長棄捐’者, 以喻不得其蹊徑而不依附之者, 終於棄捐而不見用也。惟儒者獨有定守, 閉門著書而已)라고 언급 한 바 있다.

제47수 桃花開東園

桃花開東園,¹⁷⁾ 동쪽 정원에 피어난 복사꽃,
 含笑誇白日, 웃음을 머금고 햇빛 향해 뽐내네.
 偶蒙春風榮, 우연히 봄바람을 만나 활짝 핀 꽃이,
 生此艷陽質,¹⁸⁾ 아름답고 화사한 자태를 피워낸 것이라네.
 豈無佳人色, 어찌 미인의 아름다움이 없으랴마는,
 但恐花不實, 꽃만 피우고 열매 맺지 못할까 두려울 뿐이네.
 宛轉龍火飛,¹⁹⁾ 어느덧 용화성이 서쪽으로 기울면,
 零落早相失, 시들어 삼시간에 사라져버리니,
 詎知南山松, 어찌 알겠는가? 남산의 소나무가,
 獨立自蕭颯,²⁰⁾ 우뚝 서서 스스로 쇠아쇠아 솔바람 소리 내는 것을.

17) 東園: 阮籍의 <詠懷詩>其三에 “동쪽 정원의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東園桃與李)”라는 진고가 보임.

18) 艷陽: 鮑照의 <學劉公幹體詩>에 “아름답고 화사한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艷陽桃與李)”라는 진고가 있음.

19) 宛轉: 세월이 흘러가는 모양으로, 여기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의 의미임. ○ 龍火: 동방의 수호신이자 동쪽에 있는 일곱 별자리 즉 角, 亢, 氐, 方, 心, 尾, 箕의 일곱 개의 별인 東方七宿 가운데 일명 ‘蒼龍’ 혹은 ‘大火’로도 불리는 ‘心宿’을 가리킨다. 이 별자리는 음력 7월이 되면 서쪽 아래로 기울며 가을을 알린다. 張協의 <七命>에 “용화 별자리가 서쪽으로 기울면, 여름 기울은 처음으로 가을 맞네(若乃龍火西頽, 暄氣初秋)”라는 진고가 있음. ○ 飛: 여기서는 서쪽으로 기울는 것을 가리킴.

20) 蕭颯: ‘蕭瑟’과 통용되며 나무사이로 부는 소슬한 바람 소리를 가리킴. 江淹의 <雜體詩三十首>其十一에 “무덤가는 이미 쓸쓸하고 적막하니, 소나무 잣나무에 소슬한 바람만 휘도

<校記>

제3구의 ‘春’은 ‘東’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4구의 ‘生’은 ‘一作矜’으로 표기한 판본도 있다. 제10구의 ‘颺’은 ‘瑟’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동쪽 정원에 활짝 피어난 복사꽃은 밝은 햇빛 아래서 웃음을 머금은 듯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렇듯 아름다움을 한껏 뽐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우연히 봄바람을 만나 그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기 때문이리라. 이 복사꽃은 그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다만 꽃만 피울 수 있을 뿐이고 열매는 맺지 못 할까 두려울 뿐이다. 곧 여름 지나 밤하늘의 용화 별자리가 서쪽으로 기우는 가을이 되면, 그 화려했던 복사꽃은 순식간에 땅에 떨어져 지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즉 어찌 남산의 소나무가 낙엽 지는 가을이 되어도 홀로 그 소슬한 바람 속에서 의연함을 잃지 않으며 우뚝 솟아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解說>

이 시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복사꽃과 소나무를 읊은 ‘詠物詩’처럼 보이지만, 그 은유적 의미를 함께 논해보면 ‘諷諭詩’의 성격이 더욱 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복사꽃과 소나무를 각각 ‘小人’과 ‘君子’에 빗대어, 복사꽃처럼 권력에 아부하며 영달을 꾀하는 것에는 비판을 가하는 한편 소나무처럼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어도 그 절개를 잃지 않는 모습에는 찬미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비판과 면려의 대상에 대해서는, 徐禎卿은 “이 시는 시대를 풍자한 것이다(此篇刺時也)”라고 언급하고, 朱諫은 “이 시는 소인이 시대에 득세한 것을 풍자한 것이다(此詩刺小人之得時也)”라 하여 주로 권력에 아첨하며 영달을 꾀하는 소인배를 풍자한 것에 무게를 둔 반면, 陳沆은 “영달이 덧없음을 만나 군자가 홀로 서기를 생각한 것을 말한 것이다(言榮遇無常, 君子

思獨立也)라 하였고, 詹鏞은 “이 시는 복사꽃과 소나무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인격자로 비유하였으며, 소나무가 지조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써 스스로를 면려하였다(此詩以桃花與松樹喻兩種不同品格之人, 以松樹之有操守自勉)”라고 하여 주로 소나무의 절개를 찬미하며 스스로를 면려하는 쪽에 더욱 무게를 두었다. 한편 이 시는 이백의 <感興八首>其四와는²¹⁾ 첫 구와 마지막 구를 제외하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에 함께 살펴볼 만하다.

제48수 秦皇按寶劍

秦皇按寶劍,²²⁾ 진시황은 보검을 잡고,
赫怒振威神.²³⁾ 버럭 화를 내며 신처럼 위엄 떨쳤다네.
逐日巡海右,²⁴⁾ 해를 쫓아 동해를 순행하여.

- 21) 李白, <感興八首>其四: “芙蓉在綠波上撒嬌, 桃李對着白日誇自己的艷麗. 偶爾承蒙春風的榮滋, 生出如此的艷之陽質. 不是沒有佳人的美色, 只怕是花艷結實. 一旦龍火宛轉飛去, 花朵零落, 有什麼可依靠. 難道不知凌雲的寒松, 千載長青守—”
- 22) 按寶劍: 손으로 보검을 잡고 찌르려는 자세를 말함. ‘按’은 ‘拔(발)·揮’에 비하여 위압의 정도가 강한 느낌을 줌. ‘寶劍’은 절대 권력을 상징. ‘按寶劍’은 천하를 복종시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함을 암시.
- 23) 赫怒: 대노 하다. 그 용례가 《詩·大雅·皇矣》 “왕께서 크게 역정내시도다(王赫斯怒)”, 王粲《從軍》 “曹操가 관서 지역을 정벌하고, 대노하여 하늘같은 위엄을 떨치다(相公征關右, 赫怒震天威)” 등에 보임. ○ ‘振威神’에서 ‘振’은 ‘震’과 뜻이 비슷하지만 ‘震’이 ‘振’에 비하여 그 정도가 강함을 표현한다. 때문에 ‘震天動地’, ‘震耳欲聾’와 같은 경우에서 ‘振’을 사용할 수 없다. 이로써 보면, 이 시에서도 ‘振’보다는 ‘震’을 사용함이 오히려 ‘威神’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음. ○ ‘威神’은 신과 같은 위엄, 강한 위엄을 말함. 神威와 같은 의미로 ‘天威’와 더불어 절대 위엄을 말한다. 이 시에서 ‘威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압운을 위함이다. ‘天威’의 의미로 ‘威天’으로도 할 수 있지만 ‘天’은 하평성이므로 전체 압운규칙에서 벗어난다.
- 24) 逐日: 해를 쫓아다님. 해와 달리기를 경주함. 《山海經·海外北經》에 다음과 같이 용례가 있다. “과보가 태양과 달리기 시합을 하였는데, 해가 질 무렵이 되자, 갈증이 나서 물이 마시고 싶어 황하와 위수 물을 마셨지만, 황하와 위수 물로는 부족하여 북쪽으로 가서 큰 못의 물을 마시고자 하였다. 미처 이르지 못하고 길에서 목이 말라 죽었다. 그가 버린 지팡이가 자라 큰 숲으로 변하였다(誇父與日逐走, 入日, 渴欲得飲, 飲於河渭; 河渭不足, 北飲大澤. 未至, 道渴而死. 棄其杖, 化爲鄧林)” ○ ‘觀日’의 경우는 고정된 장소에서 해를 보는 느낌을 주고, ‘逐日’의 경우는 해를 따라 수시로 이동하는 느낌을 준다. ‘逐日’은 따라서 진시황의 逸蕩을 연상시키고 진시황이 움직임에 수시로 이리저리 石橋를 가설하는 병졸들의 고통을 상상하게 한다.

驅石架滄津, 25) 바윗돌 몰아서 바다위에 다리 놓았네.
 徵卒空九寓, 26) 장정 징발하니 천하가 텅 비고,
 作橋傷萬人, 다리 놓다가 수많은 사람 죽었다네.
 但求蓬島藥, 27) 오로지 봉래산 장생불로 약만 구할 뿐,
 豈思農廡春, 28) 어찌 백성 농사 생각했으랴?
 力盡功不贍, 힘을 다하였어도 이루어 놓은 것은 없으니,
 千載爲悲辛, 천고에 아픔 되었구나!

25) 驅石: 돌을 몰다. 《藝文類聚》卷七九에 (晉) 伏琛《三齊略記》의 다음 내용을 인용하였다. “진시황이 돌 다리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해가 떠오르는 곳을 보고자 하였다. 당시에 神人이 있었는데 돌을 몰아 바다로 가는 것을 잘하였다. 城陽 언 산에 돌들이 모두 일어나서 우뚝우뚝 솟아 동쪽으로 기울어니 그 모습이 서로 따르며 가는 것과 같았다. 돌이 가는데 신속하지 않다고 하면 神人이 갑자기 채찍을 휘두르니 모두 피를 흘려서 돌들이 하나 같이 붙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始皇作石橋, 欲過海觀日出處, 於時有神人, 能驅石下海, 城陽一山, 石盡起立, 巖巖東傾, 狀似相隨而去, 云石去不速, 神人輒鞭之, 盡流血, 石莫不悉赤).” ○驅石에는 먼 곳으로부터 돌을 운반하는 과정 및 고통, 石橋 가설의 촉급함 등을 함축하고 있다. ○架: 가설하다, 세우다. ○滄津: 바다의 교량을 말함. 이로써 보면 ‘架’가 ‘駕’로 된 판본도 있으나 ‘架’로 됨이 더욱 적당하다.

26) 九寓: 九州와 같음, 천하.

27) 蓬島藥: 蓬島는 蓬萊山을 말함. 봉래산의 불사약. 《史記·封禪書》에 다음 내용이 있다. “齊의 威王, 齊의 宣王, 燕의 昭王 때부터 사람들을 시켜 바다로 가서 蓬萊, 方丈, 瀛洲를 찾게 하였다. 이 세 神山는 勃海 가운데 있고, 인간 세상과 멀지 않다고 전해졌다. 仙人들은 또한 배가 이르는 것을 걱정하여 배가 바람에 이끌려 가도록 하였다. 일찍이 그곳에 왔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선인 및 不死藥이 모두 있다고 하였다. … 秦始皇이 천하를 통일하고 이 바다에 이르자 方士들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 헤아릴 수 없었다. 진시황은 친히 바다로 갔으나 그곳에 이르지 못할까 하여 사람을 시켜 동남동녀들을 팔려 바다로 들어가 구하게 했다. 배가 바다에 이르렀으나 모두 바람을 핑계삼아 이를 수 없다하고 그곳을 바라만 보았다. … 5년 뒤에 진시황이 남쪽으로 湘山에 이르러 드디어 會稽에 오르고 또한 바다로 나아가 바다 가운데 세 神山의 기묘한 약을 얻고자 하였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沙丘平臺로 돌아와 세상을 떠났다(自威宣燕昭使人入海求蓬萊方丈瀛洲, 此三神山者, 其傳在勃海中, 去人不遠; 患且至, 則船風引而去, 蓋嘗有至者, 諸仙人及不死之藥皆在焉, …及至秦始皇并天下, 至海上, 則方士言之不可勝數, 始皇自以爲至海上而恐不及矣, 使人乃齋童男女入海求之, 船交海中, 皆以風爲解, 曰未能至, 望見之焉, …後五年, 始皇南至湘山, 遂登會稽, 並海上, 冀遇海中三神山之奇藥, 不得, 還至沙丘崩)

28) 農廡春(농호춘): 고대 金天氏의 춘계 농사담당관, 백성의 농사일. 본래는 ‘春廡農’이라 해야 하지만 ‘農廡春’으로 된 것은 압운을 위함이다. ‘春廡農’ 등에 관한 내용은 蔡邕《獨斷》, 《晉書·食貨志》 등에 보인다. 蔡邕《獨斷》 “춘호씨 농사담당관은 백성들에게 갈고 씨 뿌리는 것을 재촉한다. 하호씨 농사담당관은 백성들에게 김매고 재초하는 것을 재촉한다. 추호씨 농사담당관은 백성들에게 가을걷이를 재촉한다. 동호씨 농사담당관은 백성들에게 덮고 저장하는 것을 재촉한다(春廡氏農正, 趣民耕種. 夏廡氏農正, 趣民芸除. 秋廡氏農正, 趣民收斂. 冬廡氏農正, 趣民蓋藏)” 《晉書·食貨志》에 “옛날 金天氏 시대에는 백성들의 일에 부지런하였으니, 春廡氏에게 명하여 갈고 씨뿌리게 하고, 夏廡氏를 불러서 김매게 하였다 (昔在金天, 勤於民事, 命春廡以耕稼, 召夏廡以耘鋤)” ○廡(호)는 ‘廡’와 통용.

<校記>

제1구의 ‘黃’자는 ‘王’이라고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2구의 ‘振’자는 ‘震’이라고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3구의 ‘架’자는 ‘駕’라고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8구의 ‘鷹’자는 ‘雁’이라고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진시황이 보검을 움켜잡고, 버럭 성을 내며 천하에 신과 같은 위엄 떨치니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네. 夸父처럼 해를 쫓아 동해의 서쪽을 돌아다니고자
하여, 돌을 운반하여 해상 다리 만들어야 했네. 이에 엄청난 병졸 징발해야 했
기에 천하가 텅 비고, 험난한 해상 다리 만들어야 했기에 만민이 죽었지만 돌
아보지도 않았네.

진시황이 東巡한 것은 단지 봉래산 불사약 구하여 자기 목숨만 오래 살고자
했을 뿐이지, 어찌 백성들에게 농사 가르칠 생각이나 했으랴?

그토록 온 힘 다하였건만 원하던 공은 이루지 못하여 일출도 볼 수 없고 仙
藥도 얻을 수 없으니, 천고이래로 슬프고 쓰라림 느끼네.

<解説>

일반적으로 이 시는 시인이 天寶年間에 조정을 나온 뒤 창작된 것으로 여겨
진다. 시는 진시황의 역사를 읊는 ‘詠史詩’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그 심층
에는 진시황의 전고를 빌려 당현종이 신선을 좋아하는데 빠져 民情을 돌보지
않음을 諷刺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오언10구의 고체시로 上平聲 眞韻에 해당하는 ‘神’, ‘津’, ‘人’, ‘春’, ‘辛’ 字로 通
韻하였다. 상평성으로 압운하여 전편은 고음의 어조이며 韻尾가 n으로 압운되
어 소리가 유장하고 부드럽다. 전체 시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제1구(秦皇按寶劍)에서 제6구(作橋傷萬人)까지이다. 이 단락에서는 진
시황이 무위와 위압을 떨치며 逐日하며 東巡함으로써 천하를 도탄에 빠뜨리고

만민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음을 묘사하였다. 둘째 단락은 7구(但求蓬島藥)에서 10구(千載爲悲辛)까지이다. 이 단락에서는 진시황의 東巡은 단지 봉래산의 仙藥을 구하여 자기의 장생만을 도모한 것이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님을 서술하였다.

제49수 美人出南國

美人出南國, 남국에서 온 미인,
 灼灼芙蓉姿.²⁹⁾ 연꽃마냥 자태가 곱디곱다.
 皓齒終不發,³⁰⁾ 하얀 이 드러내며 끝내 웃지 않고,
 芳心空自持.³¹⁾ 꽃다운 마음 덧없이 지키고 있네.
 由來紫宮女,³²⁾ 예로부터 궁궐의 여인들,
 共妬青娥眉.³³⁾ 모두 미인의 젊음과 아름다움 질투하였네.
 歸去瀟湘沚,³⁴⁾ 소상강의 물가로 돌아가리니,
 沉吟何足悲.³⁵⁾ 낮게 읊조리며 어찌 슬퍼할 필요가 있겠는가?

<詳釋>

남쪽에서 온 미인은 연꽃마냥 자태가 곱디곱다. 사랑을 얻지 못하여 하얀

- 29) 灼灼(작작): 꽃이 활짝 핀 모양. 눈부시게 빛나는 모양. 선명한 모양. 《詩經·周南·桃夭》에 “복숭아나무 파릇파릇, 화사하게 꽃 피웠네(桃之夭夭, 灼灼其華)”의 전고가 있음. 陶淵明, <擬古> 其七에도 “맑고 밝은 구름 사이의 달, 화사한 잎 속의 꽃(皎皎雲間月, 灼灼葉中華)”의 전고가 있음. ○ 芙蓉姿: 여인의 아름다운 용모와 자태. 曹植의 <洛神賦>에 “가까이 가서 보면, 마치 푸른 물결 위로 피어오른 연꽃처럼 눈부시네(迫而察之, 灼灼芙蓉出綠波)”라는 전고가 있음. 朱諫은 이에 대해 “芙蓉姿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다(芙蓉姿, 貌之美者也)”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
- 30) 皓齒(호치): 희고 깨끗한 이. ○ 發皓齒(발호치): 이를 드러내고 웃다. ○ 不發: 웃지 않다.
- 31) 芳心: 꽃처럼 아름답고 애뜻한 마음. 아가씨의 마음. ○ 自持: 감정이나 욕망을 자제하다. 스스로 조절하다. 朱諫 注: 自持는, 그 마음을 지켜 잃지 않는 것이다.
- 32) 紫宮: 帝王이 있는 곳. 궁궐. ○ 紫宮女: 安旗는 궁중의 아름다운 여인들. 조정의 소인배들을 비유한다고 하였고, 奚祿詒(明)는 楊貴妃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 33) 娥眉: 누에나방의 촉수처럼 털이 짧고 초승달 모양으로 길게 굽은 아름다운 눈썹. 미인의 눈썹.
- 34) 瀟湘(소상): 湖南省 洞庭湖의 남쪽에 있는 瀟水와 湘江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 부근에 경치가 아름다운 瀟湘八景이 있다. ○ 沚(지): 물가.
- 35) 沉吟: 낮게 읊조리다.

이 드러내며 웃는 모습 끝내 보이질 않고, 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은 그저 혼자 간직하고만 있다. 예로부터 궁궐의 여인들은 서로가 임금님 총애 받고자 원하며 모두 미인의 젊음과 아름다움 질투했네. 그런 소란스러움 떠나 풍광 아름다운 소상강 물가로 돌아가리니, 총애 받지 못한 슬픔으로 낮게 읊조리며 슬퍼할 필요 없다네.

<解説>

일반적으로 이 시는 이백이 참언으로 내쫓긴 이후 인 天寶2년(743)에 창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시는 내용상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 앞의 4구절은 미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묘사하였고, 뒤의 4구절은 미인이 궁궐에 들어가 많은 여인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자, '귀거래사'를 부르며 돌아가고자 하니 슬퍼할 필요 없다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美人은 君子로 이백 자신을 비유한 것이라면, 紫宮女는 궁궐에 득실거리는 소인배들을 비유한 것이다. 이백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자신이 회재불우하여 황제의 중용을 받지 못했지만, 궁중의 암투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미련도 서러움도 없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백은 장안을 떠나며 소상강 물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유유자적 노닐며 살 것이니 슬퍼할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회재불우의 슬픔이 배어있음을 은근히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曹植의 <雜詩> 其四³⁶⁾ 이 시의 구상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니 함께 살펴 볼만하다.

제50수 宋國梧臺東

宋國梧臺東,³⁷⁾ 송나라 오대 동쪽에서,

36) 曹植 <雜詩> 其四: “南國有佳人, 容華若桃李. 朝游江北岸, 夕宿瀟湘沚. 時俗薄朱顏, 誰爲發皓齒. 俯仰歲將暮, 榮耀難久持.”

37) 梧臺: 전국시대 齊나라 오궁(梧宮)의 누대. 《水經注》 26권 <경수(涇水)>에서 “물을 따라 다시 북쪽으로 임치성 서문 북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흘러 오궁 남쪽을 지난다(承水又北逕臨淄城西門北, 而西流逕梧宮南)”고 했고, 주에서 “옛날 초나라 사신이 제나라에 가

野人得燕石.³⁸⁾ 야인이 연석을 손에 넣어.
 誇作天下珍, 천하의 진귀한 보배라고 자랑하며,
 卻哂趙王璧. 조왕의 화씨벽 오히려 비웃는구나.
 趙璧無緇磷,³⁹⁾ 물들지도 갈리지도 않는 조왕의 화씨벽,
 燕石非眞眞. 진정한 옥이 아닌 연석.
 流俗多錯誤, 세상의 풍속은 잘못된 것이 많아.
 豈知玉與珉.⁴⁰⁾ 어찌 옥석을 구분하리오!

<校記>

첫 두 구가 ‘宋人枉千金，去國買燕石’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야인이 오대 동쪽에서 돌이지만 빛깔과 무늬가 옥처럼 보이는 연석을 손에 넣게 되었다. 야인은 천하의 진귀한 보물 옥이라고 자랑하며, 옛날 조나라 왕

자 제나라 왕이 오궁에서 접대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 궁이다. 그곳의 지명을 오대리(梧臺里)라고 했으니, 대가 층층이 수려하고, 동서로 백여 보이며, 남북으로는 그에 약간 못미치는 듯했으니, 옛날 오궁의 대이다. 대의 동쪽이 《궤자(關子)》에서 말한, 송나라 바보가 연석(燕石)을 손에 넣었다는 곳이다(昔楚使聘齊，齊王饗之梧宮，卽是宮矣。其地猶名梧臺里，臺甚層秀，東西百餘步，南北如減，卽古梧宮之臺。臺東卽‘關子’所謂宋愚人得燕石處)라고 했다. 지금의 산둥 치박시(濰博市) 경내에 있다.

- 38) 燕石 : 《山海經》3권 <北山經>에서 “북쪽으로 120리를 가면 연산(燕山)이 있으니, 嬰석이 많이 난다(北百二十里曰燕山，多嬰石)”고 했다. 郭璞 注에서 “돌이 옥처럼 생겨서 미옥의 무늬와 따가 있는 것으로, 연석이라는 것이다(言石似玉，有符彩嬰帶，所謂燕石者)”라고 했다. 《後漢書》48권 <應劭傳>에서 “송나라 바보가 또한 연석을 보물로 여겨 고운 천으로 열 겹 싸맸다(宋愚夫亦寶燕石，緹縵十重)”고 했다. 李賢 注에서 “《關子》에서 말하기를 ‘송나라 바보가 오대 동쪽에서 연석을 손에 넣어 돌아와서 보관하였는데, 엄청난 보물로 여겼다. 주(周)의 객이 듣고 보러 가니, 주인장이 이레 동안 재계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회생으로 제 올리고, 열 겹 가죽 상자에 넣고, 열 겹 천으로 감쌌다. 객이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입을 가리고 웃음소리가 새나오며 말하기를, ‘이건 연석으로, 기와와 다를 바 없습니다’라고 했다. 주인장은 ‘商賈之言，賢匠之心’이라고 하고, 더 단단히 보관하고 더 단단히 지켰다(《關子》曰，宋之愚人得燕石梧臺之東，歸而藏之，以爲大寶。周客聞而觀之，主人父齋七日，端冕之衣，饗之以特牲，革匱十重，緹巾十襲。客見之，俯而掩口盧胡而笑曰，‘此燕石也，與瓦甃不殊’。主人父怒曰，‘商賈之言，賢子之心。’藏之益固，守之彌謹)”라고 했다.
- 39) 緇磷(치린) : 《論語·陽貨》 “단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갈아도 얇아지지 않으니. 희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물들이려 해도 검어지지 않으니(不曰堅乎? 磨而不磷. 不曰白乎? 涅而不緇).”
- 40) 珉: 아름다운 돌.

이 손에 넣었었다는 화씨벽도 이만 못하다고 오히려 비웃는다. 화씨벽이 어떤 보물이었던가! 너무 단단하여 아무리 갈려고 해도 갈리지 않고, 너무 흰색이라 아무리 물을 들이려고 해도 물들지가 않는 것이 조왕의 화씨벽이요, 연석은 옥이라고 할 수 없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라 이렇게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 아무리 예쁘다 한들 사람들은 어찌 옥과 돌을 구분하지 못하는가!

<解説>

安旗는 이 시를 天寶 2년(743)에 쓴 것으로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유자(儒者)는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가짜 유자가 득세하여 진정한 유자를 비난하고 비웃는 현실을 풍자한 내용을 담고 있다. 徐禎卿이 “이 시편은 세상 사람들이 美惡을 분별하지 못함을 충간한 것이다(此篇譏世人之不辨美惡也)”라 했고, 朱諫이 “이 시는 당시 사람들이 밝지 못함을 풍자한 것으로, 군자와 소인이 한 길에 뒤 섞여 있음을 풍유의 뜻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다(此詩刺當時之不明者, 君子, 小人, 混爲一途, 取喻之意也)”라고 언급한 바와 같다.

다만 오대(梧臺)에 대해서는 고증을 통해 그 소재지가 제(齊)나라에 있는 것으로 이견이 없는데, 시구에서는 宋나라 오대 동쪽이라고 한 것은 의아하다. 이것은 아마 송나라 바보가 연석(燕石)을 손에 넣은 고사와 제나라 오대의 고사를 혼용해 시용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51수 殷后亂天紀

殷后亂天紀,⁴¹⁾ 殷나라 紂王은 하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楚懷亦已昏.⁴²⁾ 楚나라 懷王도 끝내 아둔해졌네.

41) 殷後(은후): 殷나라 마지막 왕인 紂王. 말년에 포학무도한 정치를 자행하다 周나라에 멸망당하였다. 《史記·殷本紀》에 보인다. ○ 天紀: 하늘의 질서. 나라의 기강을 비유.

42) 楚懷: 楚나라 懷王. 굴원의 충언을 듣지 않고 간신들을 신임하여 齊나라와의 동맹을 끊고

- 夷羊滿中野, 43) 괴수들이 들판에 가득하고
 綠蕪盈高門, 44) 온갖 악초들이 대궐에 넘쳐났네.
 比干諫而死, 45) 比干은 직언을 하다가 죽었고
 屈平竄湘源, 46) 屈原은 湘江 남쪽으로 쫓겨났네.
 虎口何婉孌, 47) 호랑이 입속에서 어찌 목숨을 연연했겠으며

秦나라와 친교를 맺으면서 國政은 점점 혼란에 빠졌다. 나중에 秦나라에 들어갔다가 속임을 당하여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秦나라에서 죽음을 맞았다. 《史記·楚世家》에 보인다. ○ 제1,2구의 殷紂王과 楚懷王은 唐玄宗을 비유한다. ○ 已: 여기서는 '마침내', '결국', '끝내'의 의미임. ○ 昏: 머리가 아둔하여 시비를 못 가리다.

- 43) 夷羊: 고대의 전설 속의 괴수. 이것의 출현을 망국의 징조로 보았다. 《國語·周語》상에 “商나라가 흥할 때 ‘도솔’이 비산에 묵었고, 망할 때 ‘이양’이 목야에 나타났다(商之興也, 檇杪次於丕山. 其亡也, 夷羊在牧)”는 기록이 있다. ○ 中野: 들판의 한 가운데.
 44) 綠蕪(녹시): ‘葦蕪’로 되어있는 판본에 따르면 조개풀과 도꼬마리. 주로 길가나 도랑, 황폐한 곳에서 자라는 惡草로 참언과 아침이 주위에 넘쳐나는 것을 비유. 《離騷》에 “여러 악초들로 방을 가득 채우는데, 확연히 (너만) 홀로 떨어져 걸치지 않는구나(葦蕪以盈室兮, 判獨離而不服)”는 전고가 있다. ○ 高門: 조정을 비유함.
 45) 比干: 殷나라 紂왕의 숙부. 微子, 箕子와 함께 殷나라의 三仁 중 하나. 紂왕의 음란함을 간언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46) 屈平: 屈原. 楚나라 懷王이 굴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秦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객사하자 頃襄王이 즉위하면서 親秦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굴원은 頃襄王에 의해 湘江의 남쪽지방으로 추방되었다. 《史記·屈原賈生列傳》에 “굴원은 이름이 평이고 초나라 왕실과 성이 같았으며, 楚懷王의 左徒였다. … 上官大夫는 굴원과 지위가 같았는데 왕의 총애를 다투며 맘속으로 굴원의 능력을 시기하였다. … 그리하여 그를 참소하니, … 왕은 노하여 굴원을 멀리 하였다. 굴원은 왕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밝지 못하고, 주위의 참언과 아침이 왕의 밝음을 가리며, 사악과 왜곡이 그의 공정함을 헤치고, 옳고 바른 사람이 쓰이지 않음을 고통스러워하였기에, 근심에 젖고 사색에 잠겨 <이소>를 지었다. … 영운 자란은 이를 듣고 대노하여 마침내 상관대부에게 경양왕 앞에서 굴원의 결점을 들추어내게 하니, 경양왕이 노하여 굴원을 추방시켰다. 굴원은 강가에 이르러 머리를 산발하고 물가를 거닐며 읊조렸다. 안색은 초췌하고 모습은 수척했다. … 이에 돌을 안고 마침내 스스로 먹라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屈原者, 名平, 楚之同姓也. 爲楚懷王左徒. … 上官大夫與之同列, 爭寵而心害其能. … 因讒之, … 王怒而疏屈平. 屈平疾王聽之不聽也, 諛譏之蔽明也, 邪曲之害公也, 方正之不容也, 故憂愁幽思而作<離騷>. … 令尹子蘭聞之大怒, 卒使上官大夫短屈原於頃襄王, 頃襄王怒而遷之. 屈原至於江濱, 被髮行吟澤畔, 顏色憔悴, 形容枯槁, … 於是懷石遂自沈汨羅而死)”는 기록이 있다. ○ 竄(찬): 유배되다. ○ 湘源: 湘江의 상류. 지금의 湖南省 남부.
 47) 虎口: 叔孫通의 고사를 이용하여 위험한 상황을 비유. 秦나라 2세 황제 때 山東에서 陳勝이 반란을 일으키자, 2세 황제는 여러 유생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여러 선비들이 역적이라 일컬으며 군대를 동원하여 처야한다고 말하자, 황제가 노여워하며 御使에게 그들을 형벌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숙손통은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있는데 반란은 가당치않고, 그냥 도둑 정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황제가 기뻐하여 그를 博士로 삼았다. 궁궐을 나와 거처로 돌아오자 여러 선비들이 숙손통에게 말했다. “선생은 어찌 그리 아침을 잘하십니까?” 그러자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모르시오. 나는 하마터면 ‘호랑이 입’에서 탈출하지 못할 뻔 했소”라고 말한 전고가 있음. ○ 婉孌(완련): 연연하다. 주위를 돌

女嬃空憐媛.⁴⁸⁾ 누이는 부질없이 굴원을 애타게 말렸구나.
 彭咸久淪沒,⁴⁹⁾ 彭咸이 오래 전에 죽었으니
 此意與誰論. 이 뜻을 누구와 논하리!

<校記>

제4구의 '綠'이 '菘'으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은나라 주왕은 포학하여 충신들을 살해하고 군신간의 기강을 문란케 했고, 초나라 회왕도 점점 판단이 흐려져 시비를 가리는 본심을 잃었다. 그리하여 은나라에는 나라가 쇠퇴할 때 나타난다는 夷羊이 들판 가운데에 들끓으며 망국의 조짐을 보였고, 초나라는 조정에 온갖 악초들이 가득 자라나며 점점 혼란해졌다. 이에 은나라의 비간은 주왕의 문란함을 직간하다가 살해되었고, 초나라의 굴원은 회왕의 몽매함에 대하여 충언으로써 발분하다 상수의 남쪽으로 쫓겨났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호랑이 입속과 같은 곳인데도 비간은 두려움 없이 직간을 굽히지 않으며 목숨에 연연하지 않았구나. 굴원의 누이는 혈육의 안위를 생각하여 굴원의 강직함을 질책하며 애태웠지만, 결국 멀리 쫓겨났으니 누이의 걱정도 부질없는 일이 되었구나. 임금에게 간언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물에 몸을 던졌던 상나라의 어진 대부 팽함과 같은 충신들이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없으니, 죽음으로 직간한 이들의 충성스런 뜻을 장차 누구와 더불어 논한단 말인가!

아보며 이별하기 아쉬워하는 모양.

- 48) 女嬃(여수): 屈原의 누이. ○ 嬋媛(선원) : 애타게 끌어당기다. 즉, 걱정하다. 염려하다. 《離騷》의 “누이는 걱정하여, 거듭하여 나를 꾸짖는다(女嬃之嬋媛兮, 申申其詈予)”는 구절에 대해, 王逸은 ‘嬋媛’을 ‘애타게 끌다, 걱정하다(嬋媛, 猶牽引也)’로 풀이하면서 ‘굴원 자신의 행동이 못사람들과 맞지 않아 추방을 당한 것을 보고 와서는, 잡아끌어 애원하며 여러 차례 화대기도 하고 거듭하여 나를 꾸짖었다’고 풀이하었다.
- 49) 彭咸(팽함): 殷나라의 어진 大夫. 임금을 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 《離騷》에서 “비록 지금의 사람들에게 맞지 않을지라도, 팽함이 남긴 본보기를 따르려고 하네(雖不周於今之人兮, 願依彭咸之遺則)”라고 하였다.

<解說>

이 시는 天寶 후기, 당현종이 판단력이 흐려져 우매함으로 흐르면서 소인배들을 신임하고 현신들을 멀리하자,殷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紂王과 楚나라의 懷王으로 唐나라의 玄宗을 비유하여 강렬하게 諷刺한 것이다.

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6구까지의 전반부가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여 당시의 조정을 비유했다면 제7구부터의 후반부는 이백 자신의 감회와 탄식을 서술함으로써 比興으로 諷刺의 뜻을 드러내었다.

처음 1,2구의 '殷後', '楚懷'는 당시의 어두운 군주인 玄宗을 비유했다. 제3구는 나라가 패망하려는 때에 재앙의 조짐이 나타난 것을 말하였고, 제4구는 소인배가 조정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을, 제5,6구에서는 比干과 屈平을 빌려 당시의 충신들이 직언을 하다가 폄적당한 것을 비유하였다. 제7,8구는 죽음 앞에서도 의하게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찬미하는 가운데, 굴원의 누이를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함을 드러냈다. 마지막 제9,10구에서는 세상에는 팽함 같은 충신들이 이제 없으니, 충성스러운 뜻을 함께 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음을 탄식하였다.

이 시가 함의하고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의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이 시에 대해 蕭士贊이 張九齡이 좌천되었을 때 지은 것이라고 보았다. 《詩比興箋》 또한 “이 시는 唐나라 玄宗이 직간하는 신하를 막자, 장구령, 周子諒이 모두 폄적당하여 죽은 것을 탄식한 것(此歎明皇拒直諫之臣, 張九齡, 周子諒俱竄死也)”으로 보았다. 詹鏞 역시 이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둘째, 復旦大學의 《李白詩選》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당현종 후기에 간사한 李林甫를 신임하여 등용하자 정치가 부패하고 암담해졌다. 天寶6년(747) 北海太守 李邕, 淄川太守 裴敦復이 모두 피살되었다. … 당시 左相이었던 李適之는 宜春太守로 강등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음독자살을 하였다. 이적지는 당의 종실로 이백과 친한 벗이었다. 이 시는 殷나라와 楚나라의 종실인 비간과 굴원의 역사적 제재로서 현실을 풍자했으니, 아마도 이적지를 추모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唐玄宗後期, 信用姦佞的李林甫, 政治腐敗黑暗. 天寶六載, 北海太守李邕, 淄川太守裴敦復都被殺. … 當時左相李適之被貶爲宜春太守, 聽到消息, 也服毒自殺. 李適之是唐的宗室, 和李白是好友. 這首詩用殷楚的宗室比干, 屈原的歷史題材來諷刺現實, 很可能是爲追悼李適之而作)”

이백의 벗 崔成甫도 이때 湘陰으로 폄적되었는데, 郁賢皓 역시 《李白 <古風59首> 芻議》에서 본편은 이적지와 최성보 등과 같은 사람이 불행을 당한 일을 비유하였다고 보았다. 이는 <古風> 중에서 현종을 질책한 가장 격렬한 시라고 했다.

셋째, 安旗는 이 시를 天寶12년(753)에 편년하였다. 그의 관점에서 비간은 당연히 王忠嗣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굴원은 당연히 이백 자신을 비유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풍> 29수와 31수와 함께 모두 이 시기에 지어진 작품으로, 이백은 당시 安祿山이 절도사로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던 ‘幽州의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느낀 바가 있어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위의 세 가지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3. 결론

이백의 <고풍> 59수 가운데 제45수부터 51수까지의 7편의 시작은 그 제재 상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45수 <八荒馳驚颯>와 제49수 <美人出南國>은 ‘詠懷’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먼저 제45수에서는 안록산의 난으로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더욱이 막 출옥 한 시인이 자신의 이상을 의탁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심정을 《詩經》의 구절을 인용하며 드러내었다. 제49수에는 남국의 ‘미인’이 뛰어난 자태를 지니고 있으나 못 궁녀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 총애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자신의 회재불우를 간접적으

로 술회하였다.

둘째, 제46수 <一百四十年>, 제47수 <桃花開東園> 그리고 제50수 <宋國梧臺東> 등의 3수는 모두 '諷諭'의 성격이 농후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46수에서는 鬪鷄와 蹴鞠 등의 잡기에만 능한 소인배들은 득세를 하고, 정작 현자들은 내팽겨치는 정치 현실에 대한 풍자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제47수에서는 복사꽃과 소나무를 각각 '小人'과 '君子'에 빗대어, 복사꽃처럼 권력에 아부하며 영달을 꾀하는 것에는 비판의 풍자를 가하는 한편, 소나무의 절개에 대해서는 찬미하였다. 제50수에서는 梧臺의 '燕石'과 趙王의 '和氏璧'을 전고를 빌려 돌과 옥석을 분간 못하는 현실의 세태를 풍자하였다.

셋째, 제48수 <秦皇按寶劍>와 제51수 <殷后亂天紀>는 모두 역사의 일을 읊는 가운데 시인의 뜻을 드러내는 '詠史'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48수는 秦始皇의 失政을 한탄하는 가운데 장생불사에만 몰두하고 있는 玄宗의 현실 정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마지막 제51수에서는 殷代의 比干과 楚國의 屈原의 역사를 들어, 충신의 直諫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내쳐짐을 한탄하고 있다. 다만 比干과 屈原이 현실의 정치에서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 參考文獻 >

- 丁放, 袁行霈, 《盛唐詩壇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2.
 王琦 輯注, 《李太白詩集注》, 北京: 中華書局, 1977.
 王運熙, <李白'古風'其一篇中的兩個問題>, 《天府新論》, 1988年, 3月.
 李偉, <李白'古風'其一新解>, 《中國詩歌研究》, 2009年, 12月.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 成都: 巴蜀書社, 1990.
 宋敏求·曾鞏 等編, 《李太白文集》, 成都: 巴蜀書社, 1985.
 郁賢皓, 《新譯李白詩全集》, 臺北: 三民書局, 2011.
 陳伯海主編, 《唐詩彙評》,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1996.

- 陳貽焮主編,《增訂注釋全唐詩》,北京:文化藝術出版社,2001.
 瞿蛻園·朱金城,《李白集校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0.
 詹鏞 主編,《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天津:百花文藝出版社,1996.
 詹福瑞·劉崇德·葛景春,《李白詩全譯》,石家莊:河北人民出版社,1997.
 蕭士贊,《分類補注李太白詩》,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2003.
 郁賢皓,〈李白‘古風’五十九首芻議〉,《中國文學研究》,1989年4期.
 張明非,〈試論李白‘古風’〉,《廣西師範大學學報》,1985年4期.

< 中文提要 >

李白〈古風〉五十九首非一時一地之作,蓋繼承阮籍〈詠懷〉與陳子昂〈感遇〉而感時之作也。其第四十五首與四十九首乃為詠懷之作。第四十五首,便敘述詩人處於亂世之困境而無處可以託身之苦悶之情。第四十九首,以南國美人自喻,露出詩人之絕世才華與理想抱負,以及其遭受衆多小人之讒害。第四十六首,第四十七首與第五十首乃為諷諭之作。第四十六首主要揭露隱藏於繁榮後面之政治矛盾及失意者之無路可走之危機感。第四十七首主要以桃花與松樹各比喻小人與君子,并諷刺當時之政治黑暗。第五十首主要援用宋國燕石與趙王和氏璧之典故,諷刺世俗之人分不清真假玉石。其第四十七首與第五十首乃屬於詠史之作。第四十八首主要借用秦始皇之故事以批評唐玄宗追求長生不老之弊端。第五十一首借用殷楚之宗室比干與屈原之歷史題材以諷刺現實。

關鍵詞: 李白, 古風, 譯註, 唐詩.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3. 31.	2014. 4. 29.	2014. 5. 14.	2014. 5. 24.	2014. 5. 31.